

곽원진(郭元振) 神道碑

高麗成均館祭酒進
賢館大提學苞山君
諡文獻石川郭先生
神道碑銘 并書

故麗朝名臣成均館
祭酒進賢館大提學
郭公衣履之藏在陽
智縣今屬龍仁東南
三十里大德山西麓
面申之原望之若堂
若斧

其初禮葬也隧道宜
有刻而尙闕爲或者
當時未遑耶年久而
湮於草萊耶凡裔於
公者皆恨之曰子姓
之蕃庶殆滿萬計莫
非公德蔭攸庇山無
片石何以詔後遂伐
貞珉屬不肖識之

嗚呼墓文賤諛而貴
實欲從實乎則生卒
乏徵踐歷欠攷欲從
諛乎則架虛鑿空不
肖不屑爲之操此筆
誠難矣無已則寧簡
乎

고려 성균관 재주 진현관 대제학 포산군 시 문
헌공 석천 곽선생 신도비명 병서

옛 고려조 명신 성균관 제주(祭酒) 진현관(進賢
館) 대제학 곽공(郭公) 의리지장(衣履之藏)이
양지현(陽智縣: 지금은 용인에 속함) 동남 30리
되는 대덕산(大德山) 서록(西麓) 신향(서남서)의
언덕에 있어 바라보면 당(堂: 원형의 무덤)과도
같고 부(斧: 방형의 무덤)와도 같아 보인다.

당초 예장(禮葬)이 었으니 수도(隧道: 神道)에
의당 비각(碑刻)이 있었을 터인데 지금은 없으
니 혹 당시에 경황이 없었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오래되어 풀속에 묻혀 버렸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공의 자손들은
모두 한스럽게 여겨 이르기를 「자손의 불어
남이 거의 만(滿)으로 헤아릴 수 있음은 공의
덕음(德蔭)의 감쌈이 아닌바가 없는데 묘소에
는 편석(片石)조차 없으니 어떻게 후손을 훈
계할 것인가」 하였다. 드디어 돌을 다듬고 불
초더러 기록하라 하였다.

오호라 묘문(墓文)이란 유(諛: 거짓을 꾸며서
치겨세움)를 천히 여기고 실(實)을 귀히 여기
는 것인데 실을 따르자니 생졸(生卒)은 징신
(徵信)이 없고 이력(履歷)은 상고할 바가 없으
며 유(諛)를 따르자면 가허(架虛)와 착공(鑿空
: 같은 뜻)을 하여야 하는데 그질은 불초가 하
기싫은 바이니 붓을 들기가 참으로 난감하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다면 차라리 간명(簡明)
하게 하여야 하겠다.

公諱元振號石泉系
出玄風玄風之古號
曰苞山上祖苞山君
諱鏡本中朝人出仕
勝國以所封邑爲貫

自是勲德相承遂爲
東方望族曾祖諱基
正吏部尙書苞山伯
諱靖簡祖諱膺門下
贊成事考密直副使
諱敦孝聘安東金氏
主簿熙之門生公公
之名大而遠謹按麗
史忠烈王朝以總郎
奉使如元 忠宣王
朝爲佐代信

大東韻玉曰集賢提
學輿地勝覽曰成均
館祭酒通憲大夫進
賢館提學東史寶鑑
曰進賢館大提學苞
山君此其從政之大
槩也

名臣錄曰潛究性理
演解六經其學術之
精深可知矣 忠肅
王朝賜諡以文憲命
旌以忠孝其文行之
超邁可知矣

공의 휘(諱)는 원진(元振)이요 호는 석천(石川)
인데 현풍(玄風)에서 계출(系出)하였다.

현풍의 고호(古號)는 포산인데 상조(上祖)인 포
산군(苞山君) 휘 경(鏡)은 본시 중조(中朝) 사람
으로 승국(勝國: 고려를 말함)에 나와 벼슬하여
소봉(所封)된 고을로 관향을 삼았나.

이로부터 훈덕(勲德)으로 상승(相承)하여 드디
어 동방(東方)의 망족(望族)이 되었는데 증조
휘 기정(基正)은 이부상서(吏部尙書:苞山伯)으
로 시호(諡號)는 정간(靖簡)이요, 조(祖)의 휘는
응(膺)이니 문하찬성사이며 고(考)는 밀직부사
(密直副使) 휘 돈효(敦孝)이니 안동김씨 주부(主
簿) 희(熙)의 가문에 취쳐하여 공을 낳았는데
공의 이름은 크게 멀리 알려졌다. 고려사를 상
고하여 보건데 충렬왕조(忠烈王朝)에는 총랑(總
郎)으로 사명(使命)을 받들고 원(元)나라에 갔었
고, 충선왕조에는 좌대언(左代言)이 되었다고 하
였다.

대동운옥(大東韻玉)에는 집현제학(集賢提學)이라
하였고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성균관 제주 통
헌대부(通憲大夫) 진현관(進賢館) 제학(提學)이
라 하였으며 동사보감(東史寶鑑)에는 진현관 대
제학 포산군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공의 종정(從
政:이력)의 대략이다.

명신록(名臣錄)에는 성리(性理)를 잠구(潛究)하
고 육경(六經)을 연해(演解)하였다 하였으니, 학
술의 정심(精深)하였음을 가히 알 수 있겠고 충
숙왕조(忠肅王朝)에는 문헌(文憲)이란 시호를
내리고 충효를 정표(旌表)하라 명하였으니 문행
(文行)이 초매(超邁)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金潛谷類苑叢寶曰
郭某喜施與年十六
居太學有一士人貧
甚父祖以上五世未
葬來乞助公與之無
吝不質名氏其器度
之寬洪又如此顧何
敢妄加一字自束溢
美之譏哉

公凡三取咸受郡夫人封白川趙氏評理雲卿女墓失護仁同張氏別將元佑女墓合祔陽川許氏文華女墓失護

二男長忠貫太中大夫尙書左丞娶安東金氏樂安君之謙女次忠敬兵部尙書

二女長適密直副使安東金箴有四子曰士謙士廉士安士衡俱躋清顯次適保勝郎全州崔侁有子曰正臣中郎將忠貫男郭推忠翊戴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守司徒都僉議事苞

김잠곡(金潛谷: 金埴)의 유원충보에 이르기를 「곽모(郭某)는 남에게 시여(施與: 베푸는 것)하기를 좋아하여 나이 16세에 태학(太學: 성균관)에 있는데 한 선비가 가난이 극심하여 부조(父祖) 이상의 5세를 장례지내지 못했다고 공을 찾아와 구조를 요청하니 공이 서슴없이 돈을 내어주고 성명도 묻지 않았었다」 하였으니 그 기도(器度)의 넓음도 이와 같았는데 어찌 감히 망녕되이 한 자라도 더 보태어 일미(溢美: 지나치게 미화함) 한다는 비방을 자초하겠는가?

공은 무릇 삼취(三娶)를하여 모두 군부인(郡夫人)으로 봉호(封號) 받았는데 배천조씨(白川趙氏)는 평리(評理) 윤경(雲卿)의 따님으로 묘는 실전되었고 인동장씨(仁同張氏)는 별장(別將) 원우(元佑)의 따님인데 묘는 합부(合祔)하였으며, 양천허씨(陽川許氏)는 문화(文華)의 따님으로 묘는 실호(失護)하였다.

2남 중 맏이 충관(忠貫)은 태중대부(太中大夫) 상서좌승(尙書左丞)인데 안동김씨 낙안군(樂安君) 겸(謙)의 따님을 취하였고 다음 충경(忠敬)은 병부상서(兵部尙書)이다.

2녀 중 맏이는 밀직부사(密直府使) 안동(安東) 김장(金箴)에게 출가하여 4자를 두어 사겸(士謙), 사렴(士廉), 사안(士安), 사형(士衡)인데 모두 청현(淸顯)의 지위에 올랐다.

다음은 보승랑(保勝郎) 전주(全州) 최전(崔侁)에게 출가 하였는데 아들 정신(正臣)은 중랑장(中郎將)이다. 충관(忠貫)의 아들 부(郭)는 추충익대공신(推忠翊戴功臣) 삼한삼중대광(三韓三重大匡)에 사도·도첨의사(司徒·都僉議事)를 수(守)하고 포산군(苞山君)에 봉해졌으며, 시호

山君諡忠簡以忠孝
旌閭娶順興安氏文
順公遷女寔文成公
裕之孫也

舉四男居仁典理判
書游義游禮并典工
判書游信工部典書

以下代不乏賢享院
者十二府使都監司
湖司諫宗院掌令宗
藩執義漢哲佐郎期
壽僉正興懋生員瀚
應敎天衢僉樞維藩
參奉嶠士人后泰立
殯者八司直舜成進
士壽岑防禦使嶸郡
守嶮承旨邦郁都事
載祥士人仁孫康華
策勳者十四節度使
自安習讀連城主簿
好禮佐郎仁居府使
邦鍵宣傳官宗文郡
守止善主簿應龍佐
郎峯通德郎次城郡
守倜司直信章知樞
千重通德郎後天敵
愾有主簿鎮邦獻納
聖龜

(諡號)는 충간(忠簡)이요. 정려(旌閭)가 내려 졌
는데 순흥 안씨 문순공(文順公) 천(遷)의 따님을
취하였으니 이는 문성공(文成公) 유(裕)의 손녀
이다.

4남을 두었는데 거인(居仁)은 전리판서(典理判
書)은 유의(游義), 유례(游禮)는 모두 전공판서
(典工判書)이며 유신(游信)은 공부전서(工部典
書)이다.

이하에도 대(代)마다 어진이(어진이가) 떨어지지 않아
서원(書院)에 제향(躋享)된 분이 열둘이니 부사
(府使), 도(都), 감사(監司), 호(湖), 사간, 종원
(宗元) 장령 종번(宗藩), 집의 한철(漢哲), 좌랑
기수(期壽), 첨정(僉正) 흥무(興懋) 생원 한(瀚)
응교 천구(天衢) 첨추(僉樞) 유번(維藩) 참봉(參
奉), 진(嶠), 사인(士人), 후태(后泰)요, 입근자
(立殯者, 死節者)가 여덟이니 사직(司直), 순성
(舜成) 진사 수잠(壽岑), 방어사 영(嶸), 군수 룬
(嶮), 승지 방욱(邦郁), 도사 재상(載祥), 사인(士
人) 인손(仁孫), 강화(康華)이며

책운자(策勳者)가 열넷이니 절도사 자안(自安),
습독(習讀), 연성(連城), 주부 호례(好禮), 좌랑
인거(仁居), 부사, 방건(邦鍵), 선전관 종문(宗
文), 군수 지선(止善) 주부 응룡(應龍), 좌랑 음
(峯), 통덕랑 차성(次城), 군수 경(堦), 사직, 신
장(信章), 지주(知樞), 천중(千重), 통덕랑 후천
(後天)이다. 적개(敵愾: 忠憤)에는 주부 진방(鎭
邦), 헌납 성구(聖龜)가 있고

遺逸有參奉世平處
士嶮文學有敎理天
豪察訪致堯生員鳳
齡孝行蒙贈旌者多
不勝記

是知培塿不生松栢
汚泥不產珠璧茲蓋
公裕昆之謨有以啓
之也公之不朽自足
并耀三光於揄揚乎
何有略掇其遺芬一
二謹三齋七沐而係
之銘曰

忠爲根孝爲源行特
於百國有乘野有史
名互乎億馬蠶一坏
瑞雲長冪龜頭三尺
藍風不剝行者式而
過曰彼大德山之阡
是大賢人之宅

後孫通訓大夫弘文
館校理知 製誥 璨
謹撰

後孫 泳敏篆

後學通政大夫原任
奎章閣延安 李義
國書

純宗丙寅嘉俳 立

유일(遺逸)에는 참봉 세평(世平), 처사 울(嶮)이
있으며, 문학에는 교리 천호(人豪) 찰방 치요(致堯),
생원 봉령(鳳齡)이 있고 효행으로 증직이나
정려를 받은 사람은 헤일 수 없이 많다.

이로써 배루(培塿: 작은 언덕)에는 송백(松栢)이
자라지 않고 오니에서는 주벽이 나지 않음을 알
겠는데 이는 아마도 공이 후곤(後昆: 후손)에게
끼친 유모(遺謨)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니, 공의
불후(不朽)함은 스스로 삼광(三光: 日, 月, 星)과
아울러 빛날만 한데 유양(揄揚: 추켜세움)할 것
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유방(遺芳)의 한 두 가
지를 간략하게 간추려 삼가 세 번을 재계(齋戒)
하며, 일곱 번을 목욕하고 명(銘)하기를

충(忠)으로 근본을 삼고 효는 본원을 삼는 것이,
백행에 으뜸이 되나니, 나라에는 국승(國乘)이
있고 민간에는 야사(野史)가 있어 이름은 억만
년 이어지리라. 마렵(馬蠶: 무덤)의 한움큼의 흙
엔 서운(瑞雲)이 길이 드리우고 구두(龜頭: 비
석, 귀수 이부), 삼척은 남풍에도 깎임이 없으리
라 행로자(行路者) 머리숙여 지나면서 저 대덕
산 언덕은 대현인의 유택이라 말하리라.

후손 통훈대부 홍문관 교리 지제고 찬(璨) 삼가
짓고

후손 영민(永敏) 전액(篆額)하고,

후학 통정대부 원임(原任) 규장각 직각 연안 이
의국(李義國) 쓰다.

순종 병인년 세움.